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저장경찰대학교	기숙사비	755,000/한 학기
파견지역	항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한 학기(5개월)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경찰행정학과
성 별		학 년	4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 1 . 16

파견자 : (서 명)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수업은 한어병음부터 기초로 시작하여 성조를 익히고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수업은 종합수업, 듣기수업, 말하기수업 3가지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종합수업에서는 단어익히기, 문법 파악하기, 예시문 읽기 등으로 크게 이루어진다. 단어익히기는 중국교수님의 발음에 따라 성조를 익히고 한자를 외우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자를 외우기 쉽도록 반의어와 단어가 쓰이는 문장들을 예시로 들어주어 보다 쉽게 단어의 쓰임을 파악할 수 있다. 문법 파악하기는 각 파트 예시문에 쓰인 문법들을 중심으로 배우며 어려운 문법 파트도 보다 실생활 예시에 적용해주며 쉽게 설명해주신다. 예시문 읽기는 배운 단어들과 문법을 중심으로 예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때 보다 정확한 발음으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업 초반에는 병음과 성조가 주어지지만 수업 후반으로 가면 성조와 병음이 점차 사라져 자신이 얼마나 한자를 외웠는지 파악할 수 있고 실력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수업과제는 거의 없는 형태로 주어지더라도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다.

듣기수업은 종합수업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 듣기평가를 진행한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전 수업에 했던 듣기를 토대로 하여 대화를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듣기수업에서는 대략 1시간동안 병음 파악하기, 성조 파악하기로 이루어지며 후반부로 갈수록 문장을 듣고 받아쓰는 문제들이 주어진다. 남은 수업시간 동안은 대화내용이나, 예시문을 듣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들을 풀게된다. 대화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을때는 교수님께서 한 문장씩 들려주시며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기수업은 주어진 대화문을 읽고 옆의 짝과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문장들을 많이 배우게 된다. 책에 주어진 내용뿐만 아니라 중국의 음식과 유명한 장소 그리고 교통수단 등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 수업이다. 중국어로 질문을 띄워놓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말하기 능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중국 저장경찰대학교는 항저우에 위치하고 있다. 항저우는 중국에서도 크게 발전되어 있으며 문화, 관광, 음식, 교통측면에서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많이 발달된 곳은 서울의 강남같은 분위기인 묘사하다. 중국 경찰대학교 주변은 음식,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다. 반경 5분거리에 대형마트, 맥도날드, KFC, 피자헛등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있고 맛있는 중국 음식점들도 많다. 학교 뒤 반경 15분거리에는 라지지에라는 야시장 비슷한 곳이 있어서 양꼬치 등 다양한 중국 음식들을 접해볼 수 있다. 학교 주변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놀러 다니고 여행을 다닐 수 있다. 학교 앞 반경 10분 거리에 전철역이 생겼기 때문에 교통편은 더욱 더 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에서 택시를 타면 대략 30분, 버스 이용시에는 대략 50분 정도를 나가면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서호를 둘러볼 수 있다.

항저우의 기후는 여름정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춥다. 9월달에는 가을 날씨가 시작될 것 같지만 여전히 반팔을 입어도 땀이 나는 더운 날씨가 진행된다. 10월 중순쯤이 되면 낮에는 셔츠정도 밤에는 맨투맨 정도의 날씨가 되며 슬슬 서늘해지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진행되면 한국보다는 영상의 온도지만 습기가 높기 때문에 뼈가 시려운 추위가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교환학생 2학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보다 많은 옷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755,000	내부구조	2인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주방도구 반입금지, 흡연 금지, 조리 금지		
주인사항	청결을 중시하므로 방 검사에 대비하여 방을 깨끗하게 사용해야함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책상은 2인이 같이쓰는 긴 책상으로 넓은편이다.
 서랍은 개인당 2개씩 쓸 수 있는 정도이다.
 책상위에 책꽂이가 1인1개씩 주어진다.
 서랍외에도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장롱은 개인당 1개씩 쓸 수 있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넓은 편이다.
 샤워부스가 있어 샤워하기가 편하다.
 세면대도 넓어 세면도구들을 놓을 수 있다.
 환풍기의 좋은점도 있지만 환풍기에서 다른 방의
 냄새등이 넘어오기도 한다.ex)담배냄새
 변기의 물이 잘내려가는 편이다.
 뜨거운 물도 굉장히 잘 나온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도서관〉

분위기가 조용하며 깨끗한 편이다.

시간 제한이 있으며 자기 물건을 챙겨야한다.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

〈식당〉

중국학생들이 학식을 먹는 곳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마련되어 있다.

음식의 포장도 가능하다.

음료수를 파는 가게도 있다.

현금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학생카드를 결제한다.

〈강의실〉

강의실은 매우 깨끗한 편이다.

추운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준다.

빈 강의실에서는 자습이 가능하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중국어가 목적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였다. 타지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중국어는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니하오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중국에 오게 되었다.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모든 간판이 한자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중국말로 얘기하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고 새로웠다. 주변의 풍경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렇게 하나 둘씩 적응해 나갔다. 점점 신기했던 풍경들은 일상이 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조금의 시간동안 여유가 주어진다. 그때동안 학교주변의 관광명소들을 둘러다니며 여행을 다닌다.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틈에 많이 놀러다니면 좋다. 중국어도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늘게 된다. 처음에는 하나도 뭐라는지 못알아들지만 점점 대화도 들리게 되고 내 감정표현과 할 수 있는 말들도 많아진다. 중국어 욕심이 하나도 없었지만 배우다 보면 저절로 점점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

중국에 있다보니 중국 주변으로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다. 항저우에 있는 관광명소는 거의 다 둘러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서호가 굉장히 이뻐서 쉬는 날마다 서호를 중심으로 매일 돌아다녔다. 항저우와 상하이에는 기차로 1시간 30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2번 정도 여행을 다녀왔다. 한번은 2박3일, 또 한번은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2박3일이 더욱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알짜배기만 둘러본다면 당일치기도 충분히 가능했다. 학교 시험이 끝난 중강이 되면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도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놀러가 여행을 즐길 것이다. 확실히 중국 여행을 많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중국 교환학생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많은 학생들이 중국에서의 생활비에 대해 궁금해 할 것 같다. 생활비는 확실히 어느 정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사람마다 많이 차이난다. 한국에서는 대략 4-50만원 정도 사용했다면 중국에서 여행을 별로 다니지 않고 생활만 했을 때는 20-25정도 드는 것 같다. 중국 경찰대 학교에서는 매달 대략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주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중국의 물가는 한국보다는 싸편이다. 여러사람이 식당을 가 먹고 싶은 것을 다 시켜도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 특히 물과 탄산음료의 가격이 놀랄 정도로 싸편이다.

중국에서 생활하기 전에는 혹시나 입맛이 맞지 않아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했다. 하지만 너무 음식이 잘 맞는 편이어서 살이 찼다. 중국 향신료 등 때문에 음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 한국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많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교환학생으로 오기전에는 중국사람들은 우리와 얼마나 가치관과 경험관이 다를까 궁금해했다. 그리고 보다 넓은 가치관을 배우고 싶었다. 그러나 한국과 가치관이 많이 다르지 않았다. 매우 비슷했다.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비슷하구나 생각했다. 중국 친구들도 너무 친절하고 착하고 웃고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매우 놀란 것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매일 저녁마다 운동장을 돌고 농구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저녁마다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나의 일상이 되었고 이곳의 생활은 나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처럼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분명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 그리고 너무 그립고 다시 가고싶은 곳으로 남게 될 것이다.